

5월 배합사료 생산량 분석(후보종오리 생산량 증가 두드러져)

후보종오리 사육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협회가 집계한 5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통계를 집계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른 5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8천2백80톤이 생산돼 전월 7천39톤에 비해 17.6%가 증가됐다.

품목별 생산량은 어린오리가 1천2백95톤으로 전월대비 15%가 증가했고 육용오리는 4천9백95톤으로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또 후보종오리에 해당하는 큰오리는 6백25톤이 생산돼 전월 1백94톤에 비해 무려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5월들어 후보종오리 사육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밖에 산란오리 생산량은 1천2백54톤으로 전월 1천1백86톤에 비해 5%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가는 농장을 찾아(미르네 부화장)

- 품질좋은 새끼오리 생산, 부화장 생산성 극대화에 역점 -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미르네 부화장(대표 김현숙)이 품질좋은 새끼오리 생산과 부화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해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르네 부화장은 국내 부화업계로는 처음으로 부화기, 종란저장고 등에 첨단소독시스템을 도입하는가하면 종오리축사내에는 그린음악시스템, 부화기 이상시 위험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먼저 소독시설인 화강시스템은 종란저장고와 부화기내에 설치됐는데 이 시설은 강력 살균제인 차염산나트륨제제의 소독약이 종란저장고와 부화기내에 매시간당 7초씩 자동으로 분무해 소독하는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를 죽여 부화중 알이 썩는 것을 방지하여 평균 부화율을 1.5-2% 향상시키는 효과이외에 위생적인 새끼오리 생산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오리축사내에 설치된 그린음악 시스템은 종오리에 음악을 들려

중으로써 종오리의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여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이 그린음악시스템은 130년전 종의 기원을 쓴 찰스다윈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농진청 이완주박사팀이 연구해 이미 94년부터 작물분야에 실용화 보급된 기술로 작물성장, 병충해 예방 등 생산성 효과가 입증된 기술이다.

미르네 부화장은 이 시설로 종오리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란율이 약5%내외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화기내에 설치된 경보시스템은 부화기내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와 관리자 숙소에 경보음이 울려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한 시스템으로 부화기 고장에 의한 손실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신 제품 안내

오리전용 발효사료

(주)한국단미사료는 최근 오리전용 발효사료 및 양돈용 후기발효사료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 오리전용 발효사료 제품은 초생추 입식후 2주부터 출하때 까지 급여 할수 있고 기호성이 뛰어나며 불포화지방산과 육질을 높이는 특징점이 있다. 또 육질개선, 질병감소, 사료효율증진, 분뇨의 악취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오리사육농가의 사료비절감,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오리전용 발효사료는 당협회 장규호 고문이 운영중인 서우농산이 기존 발효사료 공장을 이회사로 이전해 한국단미사료가 가지고 있는 단미사료 공장시설과 합작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써 기존 서우농산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부분이 크게 보완돼 오리사육농가의 요구를 크게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료의 성분함량은 조단백 16% 이상, 조섬유 3%이상, 조회분8%이하, 조지방5%이상, 수분35% 이하이다.